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리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재 (찬48/새32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한상섭 장로 2부/최병웅 집사 3부/최영수 장로 4부/윤여훈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의 영원하신 기업 (작곡 황광선)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사도행전 20:33-35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2:18-3:6

말씀 Message 1, 2, 3부 Rev. Kyu Hyun Chae 채규현 목사

은혜의 법칙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7) 정면돌파!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Kyu Hyun Chae 채규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꿈
Dream

김홍식 목사 / Rev. Hong Sik Kim

요즘 아침 큐티를 보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꿈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10년 전,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왔던 생각이 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제 영어 이름도 'Moses'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학 생활은 꿈과 같은 나날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큰아들을 재울 때 축복의 말은 "아들아, 아빠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빠도 너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학 중 둘째, 셋째까지 출산했고 여전히 형편은 좋지 않았으며, 나이가 36살인데도 공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이 미국에 오셔서 저에게 목회자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물어보셨습니다. "자네! 아이들은 셋씩이나 낳아 놓고, 결단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가정을 먹여 살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게" 사위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후 저는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렵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위나 아들이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직업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성도님에게는, 꼭 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인도해 주셨듯이 분명히 성도님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학 중에는 나 같은 사람이 가정을 돌 볼 수 있을까,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나라며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 더 풍성하게 사역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꿈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앙의 꿈이나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그 설렘들을 다 잃어버리고 계신 분은 없는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신앙의 꿈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있다면,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내 신앙과 직장, 자녀와 교회를 위한 꿈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길 소망합니다.

In the morning QTs these days, we learned that God fulfills His promises through fruition of Joseph's dreams. With that learning, I searched for big dreams I had in the past. I was reminded of coming to U.S. 10 years ago to study, with a dream of becoming a great pastor. My American name was 'Moses' because I wanted to lead people, God's people, to God. However, my life of studying abroad was not like a dream but rather a time of confronting reality. The only blessings I could give my first son as I put him to bed was, "Son, I don't have much. I lack in so many things. But I believe God will lead you and me." My second and third were born during my time of study abroad. My family was not in good situation. I was 36 years old and yet to finish my studies. One time my father-in-law came to U.S. to visit. He had a talk with me man to man, "You have three sons now. Shouldn't you make some hard decisions? Tell me, how are you going to feed your family?" As a son-in-law, I was ashamed of the situation we were in. I lived having lost my dream. But when I think about that time now, I can confess that my dream was being realized. After finishing my studies, which was difficult, I went back to Korea to serve at a church. Through the experience of studying in the U.S., I had more understanding for those that were going through similar difficult times. By sharing my story, I could comfort those families who were frustrated by their son-in-law's unemployment. I told them that God led someone like me and that He will definitely lead them through difficult times. During my studies in the U.S., I questioned and worried whether someone like me could take care of a family or be a good pastor. I still lack in many areas, but my experience from that time became a prescription for me to now have a fulfilling ministry and a happy family. I thought I had forgotten my dream, but I realize now how God is bringing it to fruition.

Dear congregation, have you lost your dreams of faith and God's promises, and the excitement of them all, because of your difficult situation through pandemic? Whatever the reason, if you have lost your dream of faith and on a spiritual downturn, I encourage you for strength. Let's worship, pray, and evangelize with fullness of the spirit for your faith, work, children, and church. God fulfills dreams even in desperate situation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채규현 목사

은혜의 법칙

사도행전 20:33-35

1. 돈을 주고 살 때 기뻐던 기억을 말해보세요.

적용하기



2. 언제 무엇을 선물로 받았을 때 기뻐했습니까?

3. 내 것을 선물했을 때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하나님께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조건없이 감사함으로 연보를 드린 때가 있습니까?

교육부 - 한어 중고등부

하나님 능력의 손을 보라



2022년 올해는 유난히 "2"라는 숫자가 많은 해입니다. 저에게는 CIM에서 두 번째 함께 하는 졸업 뱅킷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에 세 명의 졸업생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은 정들었을 Irvine을 떠났던 첫 번째 졸업 뱅킷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열세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중 대다수가 신앙의 뿌리인 베델 공동체 안에서, 다음 예배지인 예살 공동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도 새롭게 펼쳐질 졸업생들의 예배가 기대되는 졸업 뱅킷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손수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손이 지금도 아이들의 삶과 다음 걸음 가운데 늘 함께하시며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졸업이라는 마지막과 또 입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경험하는 모든 졸업생에게 처음과 끝, 우리들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이 큰 응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형석 전도사

한 해가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작년 졸업생들이 CIM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졸업생들을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12학년과 한 해를 보낸 저에게는 참 특별합니다. 나름대로의 진로의 고민, 삶의 고민들 가운데에 성실하게 공동체를 섬겨준 친구

들이 참 대견 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식사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저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해준 게 없어 참 많이 미안 하기도 합니다. 제가 CIM 친구들에게 첫 만남 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로 만남이 시작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늘 잊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CIM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저와 믿음의 동역자로 이어져 나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으로 졸업생들에게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순간에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업생들뿐 아니라 CIM 지체들과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떤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석승진 집사(교사)

4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CIM과 함께 했습니다. 낮을 가리는 탓에 공동체와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공동체의 섬김으로 적응하고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순간은 수련회였습니다. 은혜로 하나가 된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찬양할 때는 마치 작은 콘서트처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고민을 나눌 때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미국에 와서 겪은 수많은 힘든 것들을 위로 받기도 했습니다. CIM 공동체는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집이고, 가족이고, 동아줄이고,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친구들과 찬양 팀원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과 전도사님께 받은 모든 사랑에 감사합니다. 졸업 후 예살에 가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1순위로 모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CIM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졸업생 모두를 축복해 주시려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최제영(12학년)

말씀 AGAIN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찬양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사랑 계속하기

〈2월 21일 2021년 설교 중에서〉

"네가 의사라고? 웃기시네. 너는 절대 의사가 될 수 없어, 웬지 알아? 너는 인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이유야"

"난 인류는 사랑하는데 사람이 감당이 안 돼" 유명한 만화 PEANUT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못 믿겠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다녀오기도 하고 선교지는 돕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000만명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엄지척 사인해 주시는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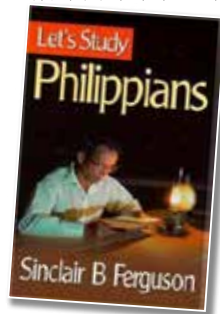
〈7월 4일 2021년 설교 중에서〉

2017년부터 리폼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코틀랜드 개혁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 (Sinclair B. Ferguson) 교수는 빌립보서 강해에서 "고난이란, 받은 은혜에 광을 낼 때 오는 마찰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이 더욱 빛이 나도록 광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이라는, 광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겪으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해석됩니다.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 못하더라도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저 십자가에서 지켜보시며, 엄지척 사인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경고 사인이 있듯, 성경에도 경고 사인이 있습니다

〈2월 14일 2021년 설교 중에서〉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 2:1)
2.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 10:29)
3.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히 12:25)
4.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 14:29-30)



"어린 왕자" by 생텍쥐페리

〈5월 30일 2021년 설교 중에서〉

"어른들이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묻지 않죠.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느냐 무슨 음식 좋아하느냐 이런 건 묻지 않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어른들에게 복숭아 색 벽돌의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할 때, 통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다고 말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탄성을 내면서 참으로 훌륭한 집이로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반대 의미로, 아담 안에서 죽는 삶의 대표적 모습이 바로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공이 뭐냐를 숫자로 나타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를 말할 때 숫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 이론 것 같아도 내리막길이 허전합니다. 최정상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민 생활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실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공했지만 뒤편길이 어둡고,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숫자로 나의 나 됨을 결코 말할 수 없고, 숫자로 나의 나 됨을 증명할 수 없으며,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아담 안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 안에서 이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구명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것, in Christ! 이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소개

휘리릭~ 주님의 휘파람 소리

신앙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편안하게 안주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그렇게 미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로 확산하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가 단절될 때 집에서 몇몇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군데의 현장 예배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 베델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델교회의 예배는 너무나 활기차고 힘이 있어 단절된 제 마음과 무뎠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매주 벅찬 감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된 말씀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성경 내용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긴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매시간 말씀마다 있어서 그 어떤 말씀보다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베델의 성도님들은 파킹랏에서, 카페에서, 교회학교에서 등 각자 맡겨진 곳에서 교회를 내 몸같이 너무나 성실하게 전심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고, 특히 새가족을 섬기시는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은 처음에 낯설고 서먹서먹하며 두렵기까지 하는 newcomer에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관심 배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따뜻하게 관심을 주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셀목사이신 장로님 권사님의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관심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셀식구들과의 만남도 반가웠습니다

베델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예배가 살아 있어 하나하나의 영혼을 귀히 여겨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임을 느꼈습니다. 2세들을 위한 교육과 영성 훈련으로 차세대로 가는 이민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든든한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라 여럿한 베델의 식구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베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권사



베델 선교-몽골

다시 복음으로



샌베노(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몽골은 한반도보다 7.4배 넓은 나라로 세계 18위입니다. 337만 8,000명의 인구 중 53%는 라마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비중은 1-2%로 추정됩니다.

13세기 칭기즈칸의 주력으로 설립된 몽골제국은 당시 아시아/유럽을 포괄하는 가장 거대한 국가였지만, 수많은 분열 후 20세기 초까지 300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1924년이 되어서야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타 국가의 지배를 당한 아픈 역사와 유목민의 문화와, 곤고

한 요새를 향한 민족의 소망이 1992년에 만들어진 국기에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파랑색: 영원한 충성/헌신, 빨강색: 부단한 전진/번영/승리, 불꽃: 성장/성공, 태양과 달: 민족의 삶, 역삼각형:창/화살, 직사각형: 성실, 물고기:남/여, 수직 직사각형: 요새/성벽)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베델의 단기 선교팀은 수행 목회자로 강문구 목사, 공병주 전도사이며, 팀원으로는 예수청년 7명, 김미화 권사 총 10명이 몽골 땅으로 파송됩니다. 을지바트&민애령 선교사 가정(자녀: 이레, 영광)과 함께 참사랑교회를 비롯한 7교회의 청년들과,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있는 조이센터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 떠납니다. 저희가 하게 될 사역은 예배, 수양회, 농구대회, 야유회를 비롯해서 후원 및 친교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지에서 만나 교제하게 될 영혼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요새이신 것을 믿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살 단기 선교팀

기도해 주세요

1. 을지바트 선교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어 참사랑교회 청년들과 조이센터 아이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청년 수양회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영혼들이 나오고, 함께 나눌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선교팀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람/목회지원/선교/QT: 정성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연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제9회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2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매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장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중에도 '장학 특별헌금'으로 계속해서 장학 사역을 확장하였고 특별히 기탁 받은 유영 장학금 1만 불을 선교사 자녀 중, 2-3명을 따로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크리스천의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6월 1일(수)-6월 30일(목)

▶ 신청 대상: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예정/ 풀타임 대학생 대상

- 베델교회 교인이거나 베델교회 교인의 자녀
- 기독교 사역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녀
- 고등학교 G.P.A. 3.3 이상, 공인된 대학 2022년 가을 입학 예정 고등학생
- 공인된 미국대학 재학 중 GPA 3.0 이상, 지난 학기 풀타임 대학생 (Undergraduate)

▶ 선정 기준: 신청서, 학교 성적, 에세이, 추천서 등을 검토해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섬김의 자세를 기준으로 장학금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scholarship@bkc.org, 교회 사무실 (949)854-40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7월) I	6/19: ①부-최주상	②부-최호경	③부-탁정호	④부-윤희정
	6/26: ①부-한 일	②부-한 존	③부-한태성	④부-이영진
	7/3: ①부-현석남	②부-홍락기	③부-홍승평	④부-이정수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6,7월) I	6/18: 김효선	6/25: 박선암	7/2: 박선재	7/9: 박성남
강단꽃(6,7월) I	6/12: 박세환, 조기옥	6/19: 김유민	6/26: 김한요, 박경철, 서예원	7/3: 김보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홍길(외과), 간호사-장한나

다음주 | 의사-이근웅(정형외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채규현 목사님께 (광주중앙교회 담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안내** 6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문구 목사께서 수요일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하시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나눔으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매주 오전10시, 본당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셀모임안내** 셀모임은 6월 말까지 진행하고 방학하게 되오니, 끝까지 말씀 붙드는 셀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다음주 19일(주일) 3부 예배 시에 1년 또는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반, 양육반, 바이블클럽 16주, BAM훈련, 전도폭발 수료식이 있습니다. 예배후 기념촬영과 개인사진촬영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6차 한 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신학강좌가 "교회를 지키는 신학-도전하는 Critical Theory"란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저명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론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 은혜와 배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좌는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라이브 송출은 없습니다.)

일시: 7월 15일(금) 저녁 7:30-9:30 (2강좌)

7월 16일(토) 오전 6:00-11:20 (4강좌)

7월 17일(주일) 오후 1:30-2:30 (Q&A)

강사: 조영천 목사(현. 아틀란타 새교회 담임, Westminster 신학교 겸임 교수)

주중훈 교수(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정승원 교수(현. 총신대학교 부총장 겸 신학대학원장)

◆ **제9회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2022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7면 참고)

신청 기간: 6월 1일(수)-6월 30일(목)

문의: 황세현 집사 scholarship@bkc.org, (949)391-9497

◆ **장학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 특별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치된 지정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헌금 시 '장학 헌금'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Tithely)

◆ **Happy Father's Day 베델 사진관** 다음 주일(19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들을 위한 기념 사진 및 가족 사진을 촬영을 해드립니다.

시간/장소: 각 예배 후, 코트야드 포토부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베델교회의 전반적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6월 25일(목) 오후 5시, 유년부 예배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VBS)** 지난주 진행되었던 영유아부 VBS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금주에는 K-5학년 VBS가 열리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K-5학년 VBS 일시: 6월 14일(화)-6월 18일(토) 오후 1시-6시 30분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 (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VBS 교사 및 TA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VBS를 위한 교사를 찾습니다. 본당앞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BS 기간 및 시간: 7월 19일(화)-7월 22일(금) / 오전 9시 - 오후 2시

문의: 김중현 집사 (949)533-4520

◆ **베델 아기학교: Mommy & Me 교사 모집**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중 프로그램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어 마미앤미 학교로 돌아옵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모든분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김경자 권사 (949)351-6123

◆ **6월호 영문 큐티인 판매** 교회학교 큐티인 6월호 영문판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6월 한달도 온가족이 함께 말씀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상: 영아-킨더(새규), 1-5학년(어규)

◆ **시큐리티팀 모집** 한 달에 한두 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교회 보안, 교내안전 점검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황사균 집사 (714)350-3524

◆ **축하해 주세요**

- 류성빈/최윤이 집사 가정에 아들 리안이가 6월 1일(수)에 태어났습니다.
- 허광주/허다솜 성도 가정에 아들 준서(Caleb)가 6월 4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마 준 집사/유선영 권사의 딸 시영 자매와 Vincent 형제의 결혼식이 6월 11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신중민 집사님(신수천 성도의 부친, 신영란 집사의 시부)께서 6월 6일(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Law of Grace

Acts 20:33–35

1. Share a joyful memory of purchasing something with your money.

Apply to Life



2. When and what gift have you received that brought you most joy?

3. What kind of joy did you feel when you gave someone a gift? What was the most memorable for you?

4. When did you give God an offering with the most joyful heart? Was there a time when you gave God an offering of thanksgiving, without any conditions?